

碩士學位論文

現代日本語의 「に・によって」受動文 考察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高亨權

2009年 2月

現代日本語の「に・によって」受動文 考察

指導教授 金勝漢

高亨權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2月

高亨權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員 _____ (印)

委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9年 2月

<국문초록>

現代日本語의 「に・によって」受動文 考察

고 형 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승 한

일본어의 수동은 능동의 대립적인 개념으로서 외부로부터의 동작을 받거나 외부의 동작·작용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나타낼 때, 능동문에서 동작의 대상인 피동작주가 수동문의 주어로 이동하면서 능동문에서 주어인 동작주의 격 전환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때 일반적으로 수동문의 동작주를 나타내는 명사(구)는 「に」「によって」 등의 격조사를 취하여 표현되어진다.

이 논문은 「に」수동문과 「によって」수동문의 의미·용법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일본어 학습자들이 수동표현에 대한 의미와 쓰임의 경향 등을 파악하고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に」와 「によって」수동문에 관한 선행연구를 간단히 검토해 보고, III장에서는 수동문의 분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수동문의 용례실태를 파악해 보고 V장에서는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유정명사인가, 무정명사인가)에 따라 「に」와 「によって」수동문이 어떤 의미·용법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술어에는 어떠한 동사가 쓰이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인 경우는 주로 「に」수동문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수동문의 주어는 동작주가 행한 동작·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작·작용의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술어에는 주로 동작주가 피동작

※ 이 논문은 2009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임

주에 대해 물리적·심리적 작용을 하는 동사와 감정과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등이 쓰이고 있다.

둘째, 수동문의 주어가 유정명사이고 동작주가 무정명사인 경우는 동작주가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주어에 대해 어떤 동작·작용을 미치게 하는 접적인 행위자라는 의미보다는 주어에 대한 원인·재료·수단의 의미로서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に」 수동문은 주어의 심리상태나 정신상태의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동작·작용의 과정이나 변화의 과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によって」 수동문은 동작·작용의 과정보다도 상태의 결과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수동문의 술어에는 주로 동작주가 주어에 대해 물리적·심리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주어의 심리상태나 정신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쓰이고 있다.

셋째, 수동문의 주어가 무정명사이고 동작주가 유정명사인 경우는 주어가 동작주의 동작·작용에 의해 주어가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 때문에 화자(話者)의 이해감정(利害感情)을 수반한 표현보다는 주로 사실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묘사할 때 쓰이고 있다. 또한 술어에는 「に」 수동문의 경우 주로 동작주가 주어에 대해 물리적 작용을 하는 동사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등이 쓰이고 있으며, 「によって」 수동문의 경우 주로 동작주의 동작·작용의 결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 새롭게 출현한다는 의미를 가진 창조동사(創造動詞)가 쓰이고 있다.

넷째,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무정명사인 경우는 어떤 사항의 사실이 나 대상물에 대한 속성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때 동작주는 원인·재료·수단 등을 나타내고 있다. 「に」 수동문에서는 동작·작용의 변화의 과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によって」 수동문에서는 동작·작용의 결과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술어에는 「に」 수동문의 경우 주로 동작주가 피동작주에 대해 물리적 작용을 하는 동사가 쓰이고 있으며 「によって」 수동문의 경우 주로 「존재를 만들어내다」「존재를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쓰이고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방법	3
II. 선행연구의 검토	5
III. 일본어 수동문의 분류	9
3.1 통어(統語)적인 관점에 의한 분류	9
3.2 의미적인 관점에 의한 분류	11
3.3 통어와 의미의 관점에 의한 분류	11
3.4 통어와 의미의 절충적인 관점에 의한 분류	12
IV. 일본어 수동문의 용례실태 조사 및 분석	15
4.1 수동문 용례 현황	15
4.2 수동문 용례 현황 분석	16
V. 「に」, 「によって」 수동문의 비교 고찰	20
5.1 「に」 수동문	20
5.2 「によって」 수동문	29
VI. 결론	38
參攷文獻	41
Abstract	43

I. 서론

1.1 연구 목적

언어는 인간의 음성이나 문자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구성체이며 표현과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가운데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적인 면이나 표현방식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있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언어 중의 하나가 곧 일본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유사점을 가진 언어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상이점도 많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특히 일본어 학습의 초보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의 한 예로, 흔히 수동문의 사용법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어의 수동문은 주로 타동사로 만들어지나 자동사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이 한국어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동에 대해 寺村(1982)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受身というのは、動作・作用の主体が、他の何ものかに働きかける場合に、動作主、つまり動きの発するところを主役とするのではなく、動きを受けるもの、動きの向かう先を主役として事態を描く表現である。2)


(수동이라는 것은, 동작·작용의 주체가 다른 어떤 것에 작용을 할 경우에 동작주, 즉 움직임을 일으키는 쪽을 주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받는 쪽, 움직임을 향하는 쪽을 주역으로 해서 사항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즉 일본어의 수동은 능동의 대립적인 개념으로서 외부로부터의 동작을 받거나 외부의 동작·작용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동사술어의 형태에 「- (ら) れる」라고 하는 조동사가 덧붙여짐으로써 만들어지며 수동문이 취하는 상황 성립에는 동작주와 그 동작에 의해 영향을 받는 피동작주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다음의 능동문과 수동문의 기본형태를 살펴보자.

2)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 くろしお出版, p.212.

Yが(は)Xを/に V(動詞) - ru (능동문)



 Xが(は)Yに/から/によって/で V(動詞)- $\begin{cases} -are- \\ -rare- \end{cases}$ ru (수동문)

Y: V-의 동작, 변화, 사건의 주체(동작주)³⁾

X: [Y가 V-하다]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체(피동작주 또는 '주어'라 칭한다)

위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능동문이 수동문으로 나타낼 때, 능동문에서의 동작의 대상인 피동작주(X)가 수동문의 주어로 이동하면서 능동문에서의 주어인 동작주(Y)의 격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 때 일반적으로 수동문의 동작주를 나타내는 명사(구)는 「に」 「によって」 「から」 「で」 등의 격조사⁴⁾와 연결되어 표현되어진다. 이들 각각의 조사들은 문장 속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용상의 제약과 서로 다른 의미·용법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⁵⁾

(1) 彼はみんな $\begin{pmatrix} \text{に} \\ \text{から} \\ * \text{で} \\ * \text{によって} \end{pmatrix}$ 好かれている。

(2) 彼の考えは多くの人々 $\begin{pmatrix} \text{に} \\ \text{から} \\ * \text{で} \\ \text{によって} \end{pmatrix}$ 支持されている。

(3) この雑誌は若手の学者 $\begin{pmatrix} * \text{に} \\ * \text{から} \\ * \text{で} \\ \text{によって} \end{pmatrix}$ 編集されたものである。

(4) この土地は放射能 $\begin{pmatrix} \text{に} \\ * \text{から} \\ \text{で} \\ \text{によって} \end{pmatrix}$ 汚染されている。

3)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동작주」는 수동문에서 능동문의 주어에 대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격상 유정명사와 무정명사 전부를 포함한다.

4) 「によって」는 격조사상당구(格助詞相当句)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격조사로 취급하기로 한다.

5) 砂川有里子(1984), 「<に受身文>と<によって受身文>」 『日本語学』(7月), 明治書院, p.76. 예문 인용

(1)~(4)를 보면, 「に」 「によって」 「から」 「で」가 각각 어떠한 특정의 조건에 의해 의미·용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우선 (1)~(4)가 모두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동작주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오는 격조사로서 (1)에서는 「に」 「から」만이 허용되고, (2)에서는 「に」 「から」 「によって」가, (3)에서는 「によって」만이, (4)에서는 「に」 「で」 「によって」가 각각 허용되고 있다. 또한 (1)~(3)은 동작주의 특성(特性)이 유정명사(有情名詞)⁶⁾인 것에 비해 (4)는 무정명사(無情名詞)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1)~(3)에서는 똑같은 유정명사인 경우에도 허용되는 조사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이 수동문에서 동작주가 취하는 조사의 선택은 어떤 특정의 조건에 따른 제약이 뒤따르고 있음에 착안하여 이들 격조사 중에서 필자가 수집한 수동문의 용례중 사용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に」 수동문⁷⁾과 사용빈도수로는 적으나 의미상으로 「に」와 가장 혼동을 많이 보이는 「によって」 수동문을 고찰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수동문에 대한 의미·용법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일반 학습자들이 수동표현에 대한 의미와 쓰임의 경향 등을 파악하고 바르게 이해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 방법

이 논문에서는 「に」와 「によって」 수동문의 의미·용법에 대한 비교 고찰을 하기 위하여 우선, II장에서 「に」와 「によって」 수동문에 관해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잠시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III장에서는 수동

6)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을 구분함에 있어 학자마다 용어의 사용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有生物 : 無生物], [有情物 : 非情物], [有情名詞 : 非情名詞], [有情名詞 : 無情名詞]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庵 功雄 外(2002)에 따라 「有情名詞」, 「無情名詞」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며, 사람이나 동물처럼 意志, 感情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有情名詞」, 식물이나 무생물로서 意志·感情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無情名詞」로 나누었다.

庵 功雄 外(2002), 『中上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株)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107.

7) 이 논문에서는 동작주가 「に」 격을 취하는 수동문과 「によって」 격을 취하는 수동문에 대해 각각 「に」 수동문, 「によって」 수동문 이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문에서 동작주를 나타내는 격조사의 의미·용법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수동문의 분류에 대해 잠시 살펴봄으로써 수동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표현 기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IV장에서는 일본어 소설, 옛세이, 교과서 등의 문헌자료에서 수동표현의 용례를 수집하여 이를 목적에 따라 유형을 재분류한 후, 이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간단히 일본어 수동문의 용례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V장에서는 수동문의 용례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に」와 「によって」 수동문의 의미·용법에 대한 비교 고찰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 논문에 쓰인 용례들은 아래와 같이 일본의 여러 문헌에서 발췌하였으며, 그 용례의 출전은 ()안에 약어(略語)를 넣어 명시하였다. 또한 용례의 출전에서 적절한 예문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문형사전의 예문과 학자들이 인용하였던 것을 재인용하였다.

【용례 출전 일람】

- 小学校教科書(1993), 『国語(4上-6下)』, 光村図書出版(株) (小4-6 上・下)
- 中学校教科書(2003), 『国語(1,2,3)』, 光村図書出版(株) (中1・2・3)
- 中学校教科書(1997), 『新編 新しい社会-歴史』, 東京書籍(株) (中社)
- 高校教科書(1992), 『国語(Ⅰ,Ⅱ)』, 明治書院 (高Ⅰ・Ⅱ)
- 大谷淳子(1998), 『ありがとう大五郎』, 新潮文庫 (あ)
- 宮崎駿(2001), 『となりのトトロ』, アニメージュ文庫 (と)
- 黒柳徹子(19981),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講談社 (窓)
- 福田靖 外(2002), 『HERO(ヒーロー)』, 扶桑社文庫 (H)
- さくらももこ(2001), 『もものかんづめ』, 集英社 (も)
- 井上靖(1988), 『愛』, 角川書店 (愛)

II. 선행연구의 검토

「に」수동문과「によって」수동문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각도에서 견해를 달리하여 연구되어 왔다. II장에서는 여러 선행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고찰의 실마리로 삼겠다.

선행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井上(1976), 益岡(1982), 寺村(1982), 砂川(1984), 細川(1986)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면,

井上(1976)와 益岡(1982)는 「に」수동문과「によって」수동문의 형태상의 차이가 통어적·의미적인 차이와 관련이 있고 대응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井上(1976)는 「に」에는 수동문의 주어에 대한 「動作主の働き掛け」의 의미가 있다고 논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도출해 내고 있다.⁸⁾

즉 「に」의 사용은 주어와 동작주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되어지며 수동문의 주어가 그 작용을 느끼지 않는 경우이거나 또는 그 작용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논하고 있다.

따라서 井上(1976)에 의하면, 수동문의 주어가 동작주의 작용을 느끼지 않는 무정명사인 경우는 「に」를 사용할 수 없다.

(5) *有志に苦しい祖国夏帰運動が続けられた。

한편, 「によって」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약이 없고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자연스런 문장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6) 有志によって苦しい祖国夏帰運動が続けられた。

益岡(1982)는 「に」수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에서 주격 이외의 어떤 명사(구)가 서술되어 있는 사항의 결과로서 심리적·물리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적으

8) 井上和子(1976), 『変形文法と日本語・(上)』, 大修館, pp.83~84.

로 나타내기 위해 그 명사(구)를 주격으로 승격(昇格)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승격수동문에 대응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⁹⁾

- (7) a. あの町は日本軍に破壊された。
b. 日本軍があ町を破壊した。

이에 비해, 「によって」수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의 주격 명사인 동작주를 비주격으로 강격(降格)하여 그 강격된 동작주를 일부러 「によって」로 나타내어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강격된 동작주를 드러내어 강조하는 효과를 낳게 하는 강격수동문에 대응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 (8) a. あの町は日本軍によって建設された。
b. 日本軍があ町を建設した。

寺村(1982)는 동사의 종류와 해당 동사가 취하는 주체와 대상(객체, 상대자)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수동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였는데, 의미적인 관점에 의해 분류된 「직접수동」과 「간접수동」이 각각 성립하기 위한 문법적 조건과 어용적(語用的) 조건에 대하여 논하였다.¹⁰⁾ 이때 寺村(1982)는 자신이 분류한 동사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동사류가 직접수동과 간접수동으로 성립하기 위해 어떠한 문법적 조건이 필요한가를 연구하면서 「직접수동」의 경우 동사의 유형과 동작주를 나타내는 격조사와는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寺村(1982)에 의하면, 「に」수동문의 경우는 동사의 의미가 「物理的・心理的働き掛け」나 「感情・感覺の動き」를 나타내고, 「によって」수동문의 경우는 동사의 의미가 「創造」를 나타낸다고 논하고 있다.

砂川(1984)는 「に」수동문과 「によって」수동문의 형태상의 차이가 이들 수동문의 의미적인 차이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고 논하고 있다.¹¹⁾

즉 「に」수동문은 의미상으로 (10)에서처럼 보문(補文)속의 명사 「試験管」과

9) 益岡降志(1982), 「日本語受身文の意味分析」 『言語研究』(82), 日本語学会編, p.53.

10) 寺村秀夫(1982), pp.217~239.

11) 砂川有里子(1984), pp.83~85.

동사「配る」가「動作主 - 動作」이라는 직접적인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논하고 있다.

(9) 学生は試験管に答案用紙を配られた。

(10) [学生が(試験管が学生に同案用紙を配る)られた]

이에 비해,「によって」수동문은 (12)에서처럼 보문(補文)속의 명사구「列車の事故」와 동사「解放する」가「動作のよりどころ - 動作」¹²⁾라고 하는 관계까지도 성립시키고 있으면 그 관계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없이「によって」수동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11) 彼は列車の事故によって丸一日仕事から解放された。

(12) [彼が(列車の事故が彼を仕事から解放する)られた。]

細川(1986)는 동사의 의미에 있어서의「結果性」의 정도에 주목하여 논하고 있다.¹³⁾

즉 동작·작용의 과정에 의미의 중심이 있는 수동문에서는 동작주를「に」로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に」로 나타내는 것은 착점(着点), 산물(産物), 동작주(動作主)에 한(限)한다고 논하고 있다.

(13) 赤信号を無視して渡ろうとした人が警官に止められていた。

한편, 수동문에 있어서「によって」로 나타내는 것은 재료·도구·또는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한(限)하며 단, 수동문이 행위의 결과 상태를 나타낼 때 동작주가 그 상태를 일으키는 사역자(使役者)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 동작주도「によって」로 나타내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여기서「動作のよりどころ」는 동작주를 비롯해서 원인, 근거 등 상황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모든 것을 일괄하고 있다.

13) 細川由起子(1986),「日本語の受身文における動作主のマーカについて」『国語学』(144), 国語学会, p.123.

(14) ベルリンの壁は東西ドイツによって取り壊された。

이상으로 살펴볼 때, 「に」수동문과 「によって」수동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선행되어 왔지만, 두 수동문의 의미적 차이를 주로 형태적·통어적 측면으로 논하고 있어 수동문에 있어 주어의 특성(유정명사인가, 부정명사인가)과 동작주의 특성(유정명사인가, 부정명사인가)에 따른 성립관계에 의한 두 수동문의 의미적 차이에 대해서는 그다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의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면서 선행연구와는 달리 수동문에서 동작주를 나타내는 조사의 선택은 수동문의 주어 및 동작주의 특성과 그 문장에 사용되고 있는 동사의 어휘적인 의미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는 규정짓게 된다고 추정되므로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문헌자료에서 수집한 실질적인 수동문의 용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に」수동문과 「によって」수동문의 의미·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Ⅲ. 일본어 수동문의 분류

Ⅲ장에서는 수동문에서 동작주를 나타내는 조사 선택의 양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수동문의 분류에 관해 잠시 살펴봄으로써 수동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표현기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일본어의 수동은 그 분류법에 있어서 많은 학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 학자들마다 각각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며 그 분류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3.1 통어(統語)적인 관점에 의한 분류

통어적인 관점에서 수동문을 분류한 대표적인 학자는 森田(1971)와 井上(1976)이다. 森田(1971)는 일본어의 수동문을 형식면에서 다음의 [표1]과 같이 10종류로 분류하고 이를 「제1종수동」과 「제2종수동」으로 분류하고 있다.¹⁴⁾

[표1] 일본어 수동문의 분류

분류	능동문	→	수동문
제 1 종 수 동	① A가 自動詞	→	(Bは) Aに 自動詞(ら)れる。
	② A가 C를 他動詞	→	(Bは) Aに C를 他動詞(ら)れる。
	③ A가 B의C를 他動詞	→	Bは Aに C를 他動詞(ら)れる。
	④ A가 B에 C를 他動詞	→	Bは A에(から) C를 他動詞(ら)れる。
	⑤ A가 B에 自動詞	→	Bは A에(から/によって)自動詞(ら)れる。
제 2 종 수 동	⑥ A가 C를 他動詞	→	Cは A에 他動詞(ら)れる。
	⑦ A가 C를 他動詞ている	→	Cは A에 他動詞(ら)れている。
	⑧ A가 C를 B에 他動詞	→	Cは A에(から) B에 他動詞(ら)れる。
	⑨ (A가) C를 他動詞	→	C가 他動詞(ら)れる。
	⑩ (A가) C를 B에 他動詞	→	C가 B에 他動詞(ら)れる。

(A는 동작·작용의 주체, B는 상대, C는 대상을 나타낸다.)

14) 森田良行(1971), 「受身・使役の言い方」 『講座日本語教育』 (第9分冊),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p.20.

제1종수동의 형식적 특색은 능동문에서 주격이었던 「Aが」 격이 「Aに」 격으로 바뀌고 수동의 주체로서 피동작주(B)를 주어로 세우고 있으며 타동사의 목적어 「Cを」는 수동문에서도 그대로 「を」 격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또한 ⑤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피동작주(B)는 인간(유정명사)이 온다. 설령 능동문에서는 피동작주가 의식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수동문에서는 반드시 「Bは」의 형태로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바꿔 말하면, 피동작주를 의식해 피동작주의 입장을 서술하는 것이 제1종수동문을 성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2종수동은 타동사에 접속되어 타동사의 목적어 「Cを」를 주어로 만드는 수동문이다. 즉 동작주인 「A」와 피동작주인 「C」와이 관계에 있어서 후자를 주어로 하는 직접수동문이다. 이때 동작을 받는 「C」는 유정명사, 무정명사에 관계없이 주어로 놓일 수 있다.

한편, 井上(1976)는 일본어 수동문을 크게 「단순수동문」과 「간접수동문」으로 나누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¹⁵⁾

- (15) a. 私がジョンに招待された。
- b. ジョンが私を招待した。
- (16) a. われわれは、雨に降られた。
- b. 雨が降った。
- (17) a. 私は先生に子供を叱られた。
- b. 先生が私の子供を叱った。

(15a)처럼 수동문에서 대응하는 능동문의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것을 「단순수동문」이라 하고, (16a)처럼 동사가 자동사로 되어 있는 것과 (17a)처럼 능동문의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로 되지 않고 그대로 목적어로 남아 있으면서 다른 것이 수동문의 주어가 되는 것을 「간접수동문」이라고 하고 있다.

井上(1976)의 단순수동문은 森田(1971)의 「제2종수동」과 같은 것이며 간접수동문은 자동사의 수동문이라는 점과 능동문에서 타동사의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森田(1971)의 「제1종수동」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5) 井上和子(1976), pp.75~80.

3.2 의미적인 관점에 의한 분류

일본어의 수동문에 대해서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한 학자는 寺村(1982)이다. 寺村(1982)는 일본어 수동문을 「직접수동」과 「간접수동」으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¹⁶⁾

- (18) a. 直孝は祖母に育てられた。
b. 祖母が直孝を育てた。
- (19) a. 直孝は五歳のとき祖母に死なれた。
b. *祖母が直孝を死なんだ。
- (20) a. ア-サ-王子が両親をラビック王に殺された。
b. *ラビック王がア-サ-王子を両親を殺した。
- (21) a. ア-サ-王子が予言者マーリンに助けられた。
b. 予言者マーリンがア-サ-王子を助けた。

(18a)(21a)는 수동문의 주어가 동사의 동작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적 특징과 수동문에 대응하는 능동표현을 가졌다는 구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19a)(20a)는 주어가 받는 영향이 간접적이라는 점과 대응하는 능동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寺村(1982)는 (18a)(21a)처럼 수동문의 주어가 받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대응하는 능동문이 있는 수동을 「직접수동」, (19a)(20a)처럼 수동문의 주어가 받는 영향이 간접적이고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수동을 「간접수동」으로 구별하고 있다.

3.3 통어와 의미의 관점에 의한 분류

久野(1983)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 통어적인 관점과 의미적인 관점에 따라 일본어 수동문을 분류하고 있다.¹⁷⁾

16) 寺村秀夫(1982), pp.214~215.

17) 久野 暲(1983), 『新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pp.192~193.

- (22) a. 田中は、花子にアパートに来られた。 (*花子が田中をアパートに来た。)
 b. 太郎は花子に小説を書かれた。 (*花子が太郎を小説を書いた。)
 c. 田中老人は娘にその少年と結婚された。 (*娘が田中老人をその少年と結婚した。)
- (23) a. この子は皆にかわいがられている。 (皆がこの子をかわいがっている。)
 b. 田中は、山田先生に認められた。 (山田先生が田中を認めた。)
 c. 田中は山田に夕食によばれた。 (山田が田中を夕食に呼んだ。)

(22a)는 「花子がアパートに来る」라고 하는 상황에 의해 「山田」가 피해나 迷惑을 입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22b)는 「花子が小説を書く」라고 하는 상황에 의해 「太郎」가 피해 또는 迷惑을 입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2c)에서도 똑같이 강한 피해나 迷惑을 입었다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23abc)에서는 피해나 迷惑을 입었다는 의미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여기서 久野(1983)는 (22abc)와 (23abc)수동문 사이에는 피해 또는 迷惑의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지 없는지의 의미적인 차이 외에 다음과 같은 통어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22abc)에서는 수동문 전체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지만 (23abc)에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22abc)는 의미상 「피해수동문」, 통어상 「간접수동문」이 되며 (23abc)는 의미상 「중립수동문」, 통어상 「직접수동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久野(1983)의 이러한 분류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寺村(1982)의 분류 방법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점이 있다면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久野(1983)는 수동문의 통어적 분류에서 「직접수동문」 「간접수동문」이라는 용어를, 의미적인 분류에서 「중립수동문」 「피해수동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寺村(1982)는 의미적인 분류에서 「직접수동문」 「간접수동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4 통어와 의미의 절충적인 관점에 의한 분류

鈴木(1978)는 능동문의 어느 성분이 수동문의 주어가 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¹⁸⁾

① 직접대상수동문

일본어 능동문에서 「~を」 격의 형태를 취하는 직접대상의 피동작주가 수동문에서 주어로 나타나는 문이다.

(24) a. さち子が 二郎に なぐられた。



b. 二郎が さち子を なぐった。

② 상대수동문

일본어 능동문에서 「~に」 격의 피동작주가 수동문에서 주어로 나타나는 문이다.

(25) a. 太郎が のら犬に かみつかれた。



b. のら犬が 太郎に かみついた。

(26) a. 花子は 太郎に 算数をおしえられた。



b. 太郎は 花子に 算数をおしえた。

③ 소유주수동문

능동문에서 소유주와 소유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を」 격 명사구 안에서 수식어에 해당하는 소유주가 수동문의 주어로 나타내는 문이다.

(27) a. 花子が 先生に 絵を ほめられた。



b. 先生が 花子の絵を ほめた。

④ 제3자수동문

능동문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능동문의 동사에 의해서 「迷惑」를 받는 제3자를

18) 鈴木重幸(1978), 『日本語文法・形態論』, むぎ書房, pp.279~284.

수동문의 주어로 나타내는 문이다.

(28) a. ぼくは 雨に ふられた。

 ↑
b. 雨が ふった。

위 네 종류의 수동문 중에서 ①②③은 통어적인 면에 관점을 두고 분류하고 있으며 ④는 의미적인 면에 관점을 두고 분류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어 수동문의 분류에 관하여 크게 네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어 5인의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들 견해의 특징적인 사항에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상이한 점들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특별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결국 같은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혹은 다른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수동문의 분류를 의미적인 관점에서 분류한 寺村(1982)의 「직접수동」 「간접수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IV. 일본어 수동문의 용례 실태 조사 및 분석

IV장에서는 일본 소설, 에세이,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의 문부과학성 검정교과서 등의 문헌자료에서 수동문의 용례를 조사하여 발췌하고 이를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한 후 실질적인 수동문의 용례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수동문의 용례조사에 사용된 자료의 선정에 있어서는 특정한 한가지 종류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자가 구입하기 용이한 소설류, 교과서(국어, 역사)류, 에세이 등으로 선택하였다.

수동문의 용례 조사 범위에 있어서는 수동문에서 동작주를 나타내는 격조사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に」 「によって」 「から」 격을 취하는 수동문으로 하되,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명시되어 있는 문장만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주어나 동작주가 생략되어 표면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 수동문의 경우와 기타 관용어적 표현으로 사용된 수동표현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1 수동문 용례 현황

수동문의 용례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필자가 수집한 자료에서 수동형식을 취하고 있는 수동문 중에서 조사대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수동표현 197개의 문장을 발췌한 후 이를 다시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이 유정명사인가, 부정명사인가에 따라 이들의 조합을 「유정명사 : 유정명사」 형인 경우, 「유정명사 : 부정명사」 형인 경우, 「부정명사 : 유정명사」 형인 경우, 「부정명사 : 부정명사」 형인 경우로 각각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문헌자료의 종류(성격)에 따른 격조사의 사용빈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각 유형에 따른 용례 현황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3][표4]와 같다.

[표3] 자료별 용례 현황

조사 주어·동작주 자료	に				によって				から			
	유·유	유·무	무·유	무·무	유·유	유·무	무·유	무·무	유·유	유·무	무·유	무·무
① 小4-6	7	2	1	8			1	2	4			2
② 中1-3	10	8	6	5		1	4	9	2			2
③ 高 I. II	5	3				1	2	7				
④ 中社	2		6	6		3	6	7		3		4
⑤ (あ)	3		1						1			
⑥ (と)	7	2		4								
⑦ (窓)	3	1	1	1					1			
⑧ (H)	11	2	1	2	1				1	1	1	
⑨ (も)	4	7	1	3					2			
⑩ (愛)	2	3		1								
소계(197문)	54	28	17	30	1	5	13	25	11	4	1	8
%	43.2	22.4	13.6	24	2.2	11.4	29.5	56.8	45.8	16.6	8.3	33.3
총계(197문)	129문(65%)				44문(22%)				24문(13%)			

(①-③은 국어교과서, ④는 사회교과서, ⑤-⑧은 소설, ⑨⑩은 에세이를 나타낸다.)

[표4] 유형별 용례 현황

조사 주어:동작주	に	によって	から	計(%)
유정 : 유정	54	1	11	66(34%)
유정 : 무정	28	5	4	37(19%)
무정 : 유정	17	13	1	31(16%)
무정 : 무정	30	25	8	63(32%)
계	129(65%)	44(22%)	24(13%)	197(100%)

4.2 수동문 용례 현황 분석

4.2.1 자료별 용례 현황 분석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어 수동문에 있어서 동작주를 나타내는 격조사

의 사용은 「に」가 129문(65%)으로 가장 많으며 「によって」가 44문(22%), 「から」가 24문(13%)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작주를 나타내는 격조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に」로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어의 수동표현에 있어서의 동작주를 나타내는 격조사는 「に」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밖의 격조사는 문장속에서 사용상의 어떤 특정의 조건에 의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3]의 자료별 용례 현황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동문에 있어서 동작주를 나타내는 격조사의 사용상의 구별은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것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に」는 10개의 모든 자료에서 대부분 고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어 수동표현에 있어서 「に」수동문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によって」는 대부분이 교과서류의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 소설류나 옛 세이 등에서는 용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교과서류의 자료에서도 특히 사회교과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によって」수동문이 문장체적 성격이 강해 역사적 사실이나 논설문·해설문 등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행위자의 진술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 3) 「から」는 수동문의 용례 중 사용빈도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조사에서 나타난 용례들 중에서는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인 경우에 대체로 많이 나타났다.

4.2.2 유형별 용례 현황 분석

[표4]의 유형별 용례 현황을 살펴보면, 발췌한 197문 가운데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관계로 조합된 형태에서 [유정 : 유정]형이 66문(34%), [유정 : 부정]형이 37문(19%), [부정 : 유정]형이 31문(16%), [부정 : 부정]형이 63문(32%)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일본어의 수동문에서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인 경우이거나 또는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부정명

사인 경우에 대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자세히 분석·정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정 : 유정]형은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이 모두 유정명사인 경우로 전체 수동문 중에서 34%를 차지해 가장 사용빈도수가 많으며, 특히 동작주를 나타내는 격조사로는 「に」가 54%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수동문이 전체적으로 사용빈도수가 많은 것은 일본어 본래의 수동문이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의 이해나 득실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을 주어로 내세워 수동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利害關係)에 있는 동작주와 주어는 당연히 유정명사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によって」는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인 경우에는 거의 용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유정 : 부정]형의 경우는 주어가 유정명사이고 동작주가 부정명사이다. 이런 유형의 경우 일본어에서는 부정명사를 주어로 하는 능동문보다는 유정명사를 주어로 하는 수동문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이 경우의 동작주는 부정명사이기 때문에 동작·작용의 행위자라는 의미보다는 주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재료·수단 등의 뉘앙스를 준다.¹⁹⁾

3) [부정 : 유정]형은 수동문의 주어가 부정명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동문에서 주어가 동작주의 행위·작용에 의해 무언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입장을 느끼지 못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경우 실제 수동문의 용례를 보면, 전체 수동문 중에서 16%밖에 안되 그 사용빈도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に」수동문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수동문은 의미적으로 화자의 이해감정을 나타낼 수 없으며, 어떤 사실을 단순히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 [부정 : 부정]형은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부정명사인 경우로서 [유정 : 유정]형의 경우처럼 전체적으로 수동문의 사용빈도수가 많다. 이것은 조사대상에 논설문이나 지문(地文)의 성격이 강한 소설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특히 「によって」수동문의 경우 압도적으로 사용빈도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によって」수동문이 문장체적 성격이 강해 역사적 사실

19) 林憲燦(2003), 『日韓兩言語における受動文と使役文-ヴォイスのカテゴリーの観点から-』, J&C, p.82.

이나 논설문·해설문 등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행위자의 진술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여러 문헌자료를 통하여 수동문의 용례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동문의 용례 실태의 분석 자료가 곧 모든 수동문의 실태로 일반화시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폭넓고 상세한 용례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일본어 수동문에서 동작주를 나타내는 격조사의 사용상의 구별이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과도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일본어 수동문의 일반적인 쓰임의 경향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V. 「に」, 「によって」 수동문의 비교 고찰

V장에서는 「に」 수동문과 「によって」 수동문의 비교 고찰을 하기 위해 IV장에서 수동문의 용례 실태를 분석한 [표3][표4]의 결과 자료를 토대로 「に」와 「によって」 수동문에 대해 각각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을 유정명사인가, 부정명사인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문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① 「有が有に(によって)~(ら)れる」型
- ② 「有が無に(によって)~(ら)れる」型
- ③ 「無が有に(によって)~(ら)れる」型
- ④ 「無が無に(によって)~(ら)れる」型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분류된 수동문형의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문형의 수동문이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에 따른 성립관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또한 수동문의 동작주가 취하는 조사의 선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제약요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동사의 의미적인 특성에 따른 성립관계는 어떠한 경향성을 띄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5.1 「に」 수동문

「に」 수동문은 일본어 수동문에서 동작주를 나타내는 조사 「に」 「によって」 「から」 격 중에서 가장 사용빈도수가 많은 수동문으로서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이 유정명사, 부정명사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있어 쓰이고 있다.

5.1에서는 「に」 수동문의 용례 중에서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 각 문형별 수동문의 의미·용법에 대해 어떠한 성립양상이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수동문의 술어에 나타나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특성과 그 경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5.1.1 「有が有に~(ら)れる」型

동작주가 「に」 격을 취하는 수동문 중에서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인 경우이다. 이런 문형의 경우 동작주 다음에 격조사 「に」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수동문의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29) a. 金子さんが先生に褒められた。 (中3, p.262)

b. 先生が金子を褒めた。

(30) a. さくらはまわりの人に尊敬されているでしょう。 (も, p.262)

b. まわりの人がさくらを尊敬している。

(31) a. ゼブラはイングリッシュ先生に呼ばれて部屋に行った。 (中2, p.129)

b. イングリッシュ先生がゼブラを呼ぶ。

(29a)~(31a)는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로 이루어진 수동문으로서 (29b)~(31b)와 같이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며 또한 능동문의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수동문은 의미적으로 수동문의 주어가 동작주의 동작·작용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직접수동문의 예이다.

예문을 살펴보면, (29a)는 「褒める」의 동작에 대하여 동작주는 「先生」이고 동작을 받고 있는 주어는 「金子さん」이다. 이들 「先生」과 「金子さん」은 모두 「褒める」의 동작에 대하여 관여하며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다. (30a)(31a)의 경우도 이와 같이 주어와 동작주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9a)(30a)는 술어에 동사 「褒める」「尊敬する」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동사는 「칭찬하다」「존경하다」의 뜻으로 본래 수익의 성격을 갖는 동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동사를 수동형태로 취한 (29a)(30a)는 의미면에서 주어가 동작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수익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1a)는 동작주로부터 받은 영향이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를 말할 수 없고 단순히 선생님이 불러서 방으로 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의미상 중립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32) a. 君はパパにだまされている。君のママはもう死んでいる。 (中2, p.111)

b. パパが君をだましている。

(33) a. かわいそうに兵十はいわし屋にぶん殴られて、あんなきずまで付けられたのか。

(小4 下, p.63)

b. いわし屋が兵十をぶん殴る。

(34) a. 母や自分自身が爺さんや婆さんにいじめられたために嫌っている。 (も, p.227)

b. 爺さんや婆さんが母や自分自身をいじめた。

(32a)~(34a)는 (29a)~(31a)와는 조금 다르다. 물론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의미면에서 볼 때, (32a)~(34a)의 동사는 「だます」「ぶん殴る」「いじめる」와 같이 동사자체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동사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동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수동형식을 취하게 될 경우 피동작주의 피해적인 의미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32a)~(34a)는 수동문의 주어가 동작주가 행한 동작·작용에 대해 어떤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29a)~(31a)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간접수동문인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35) a. 私たちははとなりの息子に一晩中レコードをかけられた。 (寺村 1982 : 244)

b. *はとなりの息子が私たちを一晩中レコードをかけた。

(35a)는 전형적인 간접수동문의 예이다. 간접수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을 가진 직접수동문과는 달리 수동문에 직접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고 그 구문이 능동표현에서 파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어가 술어에서 표현되어지는 사항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수동문의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²⁰⁾ 간접수동문이 보

20) 寺村秀夫(1982), p.243.

통 「迷惑受身(피해수동)」라고도 불리는 것은 수동문의 주어가 자신의 어떤 동작·작용에 상관없이 일어난 사항으로부터 「迷惑」의 의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간접수동문에서 동작주가 「に」 격을 취하는 것은 동작주가 그 동작·상태에 의해 유정명사인 주어에 대해 물리적·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영향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로 이루어진 「に」 수동문에서 수동의 의미는 피해·迷惑의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수익, 중립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문형은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문형보다 피동(被動)의 의미가 강하며 또한 동작주는 주어에 대해 물리적·심리적인 영향을 직접 미치는 존재로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로 이루어진 「に」 수동문의 술어에 쓰이는 동사를 살펴보면, 「褒める」「尊敬する」「ぶん殴る」「殺す」「打つ」「だます」「いじめる」「叱る」「呼ぶ」「かける」 등 주로 동작주가 피동작주에 대해 물리적·심리적으로 작용하여, 이에 따라 피동작주가 직접 어떤 영향을 받는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의 동사이거나 또는 동작주의 동작·작용이 피동작주를 목표로 한 감정의 움직임이나 감각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이고 있다.

5.1.2 「有が無に~(ら)れる。」型

동작주가 「に」 격을 취하는 수동문 중에서 주어가 유정명사이고 동작주가 무정명사인 경우이다.

(36) a. わたしは、むき出しに波や風にさらされたいと思ったからであった。 (高 I, p.128)

b. 波や風がわたしをさらす。

(37) a. ある日、パソコンを打っていた私はまたも睡魔に襲われ、…。 (も, p.143)

b. 睡魔が私を襲う。

(38) a. 彼はその日の地元の新聞に大きく取り上げられたそうである。 (も, p.154)

- b. 新聞が彼を取り上げた。
- (39) a. アメリカ合衆国ケネディ大統領は、…銃弾に撃たれ死亡しました。 (中3, p.112)
- b. 銃弾がケネディ大統領を撃つ。
- (40) a. 長屋王は勢力争いに巻き込まれ、四十六歳のとき、自殺においつめられ、悲劇的な最期をとげた。 (小6 上, p.109)
- b. 勢力争いが長屋王を巻き込む。

(36a)~(40a)는 수동문의 주어가 유정명사이고 동작주가 무정명사인 경우의 예로서 (36b)~(40b)와 같이 대응하는 능동문도 존재하고 있다. (36a)~(40a)를 살펴보면, 수동문의 동작주가 행한 동작·작용이 주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수동문의 동작주는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주어에 대해 어떤 동작·작용을 미치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자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의 뉘앙스를 주고 있다. 즉 (36a)의 「波, 風」는 자연현상을 나타내며, (37a)의 「睡魔」는 원인·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38a)(39a)의 「新聞, 銃弾」은 각각 재료와 도구를 나타내고 있으며, (40a)의 「勢力争い」는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능동문(36b)~(40b)를 살펴보면, 능동문의 주어인 동작주가 사람이나 동물 따위의 유정명사가 아니라 무정명사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어에서 능동문의 주어는 유정명사인 경우가 전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문으로서 성립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 무정명사를 의인화(擬人化)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²¹⁾

즉 (36b)~(40b)는 모두 술어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문맥상 동작주의 행위·작용에 의해 주어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정명사 동작주에 시점을 두어 의인화한 능동의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어에서는 동작주가 무정명사일 경우에도 그 무정명사 동작주의 동작·작용이 유정명사 피동작주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인법(擬人法)을 사용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형의 경우 일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정명사에 시점을 두는 능동문보다는 유정명사에 시점을 두는 수동

21) 林憲燦(2003), p.177.

문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²²⁾

이와 같이 주어가 유정명사이고 동작주가 무정명사로 이루어진 「に」 수동문의 술어에 쓰이는 동사를 살펴보면, 「さらす」「撃つ」「襲う」「取り上げる」「巻き込む」 등 주로 동작주가 피동작주에 대해 물리적·심리적으로 작용하여, 이에 따라 피동작주가 직접 어떤 영향을 받는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의 동사가 쓰이고 있다.

5.1.3 「無が有に~(ら)れる。」型

동작주가 「に」 격을 취하는 수동문 중에서 주어가 무정명사이고 동작주가 유정명사인 경우이다.

- (41) a. 天皇や貴族・寺社などの領地は各地の武士に奪われた。 (中社, p.92)
b. 各地の武士が天皇や貴族・寺社などの領地を奪った。
- (42) a. 日本は連合国軍に占領された。 (中社, p.272)
b. 連合国軍が日本を占領した。
- (43) a. 生糸は貿易商人に買い集められて品不足となった。 (中社, p.188)
b. 貿易商人が生糸を買い集めて品不足となった。
- (44) a. 直接耕作する農民に土地の権利が認められ、…。 (中社, p.117)
b. 直接耕作する農民が土地の権利を認める。
- (45) a. 軽くて明るい色のインド綿布が人々に歓迎された。 (中社, p.168)
b. 人々が軽くて明るい色のインド綿布を歓迎した。
- (46) a. 短歌と俳句は今でも多くの人々に親しまれている。 (小6 上, p.21)
b. 多くの人々が短歌と俳句に親しんでいる。

(41a)~(46a)는 수동문의 주어가 무정명사이고 동작주가 유정명사인 경우의 예로서 (41b)~(46b)와 같이 대응하는 능동문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형은 수동문의 용례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볼 때 앞에서 살펴본 5.1.2의 「有が無に~

22) 細川由起子(1986), p.123.

(ら)れる。」型에 비해 그 사용빈도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형이 수동문에 있어 사용빈도수가 적은 이유는 (41a)~(4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동문의 주어가 모두 부정명사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에서 수동문은 수동문의 주어가 유정명사일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형에서는 보통 어떤 사항을 표현할 때 화자는 주어인 부정명사에 시점을 두는 수동문 표현보다 동작주인 유정명사에 시점을 두고 능동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형의 수동문은 능동문에서 유정명사인 동작주를 주어의 위치로부터 끌어내려 동작의 대상이 되는 부정명사인 피동작주에게 일부러 시점을 두어 수동문의 주어로 표현하는 형태이므로 다른 구문보다도 수동문을 사용하는 표현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²³⁾

한편, 이런 문형의 수동문에서 「に」로 나타내는 동작주는 (41a)~(46a)에 명시된 「各地の武士」「連合軍」「貿易商人」「農民」「人々」「多くの人々」처럼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경우가 많으며 주로 유정명사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또한, 이러한 문형은 동작주가 유정명사라 하더라도 주어가 부정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주가 행한 동작·작용에 대해 수동문의 주어가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형의 수동문은 화자가 이해감정(利害感情)을 수반한 입장을 나타내기보다 어떤 사물과 사항에 대한 사실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어가 부정명사이고 동작주가 유정명사로 이루어진 「に」수동문의 술어에 쓰이는 동사를 살펴보면, 「奪う」「占領する」「買い集める」「認める」「歓迎する」「親しむ」등 주로 동작주가 피동작주에 대해 물리적으로 작용하여, 이에 따라 피동작주가 직접 어떤 영향을 받는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의 동사이거나 또는 동작주의 동작·작용이 피동작주를 목표로 한 감정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이고 있다.

23) 林憲燦(2003), p.185.

5.1.4 「無が無に～(ら)れる。」型

동작주가 「に」 격을 취하는 수동문 중에서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무정명사인 경우이다.

- (47) a. たきぎの束はゴミや小枝といっしょになって風にとられてクルクルと宙に舞い、
(と, p.49)
b. 風がゴミや小枝といっしょになってたきぎの束をとる。
- (48) a. 繫舟は残らず波にさらわれて影なく、渡し守の姿も見えない。 (中2, p.87)
b. 波が繫舟をさらう。
- (49) a. 町は薄暮に包まれ始めていた。 (中3, p.105)
b. 薄暮が町を包んでいる。
- (50) a. 小麦のつぶはかたい皮におおわれている。 (小5 上, p.104)
b. かたい皮が小麦のつぶをおおっている。
- (51) a. 泉が無残にもブルドーザーにほりくずされて、赤土混じりの泥水がちよろちよろ
ながれているだけだった。 (小6 下, p.41)
b. ブルドーザーが泉をほりくずす。
- (52) a. 私の体はすべて腹の痛み支配されてしまった。 (も, p.95)
b. 腹の痛みが私の体を支配する。

(47a)~(52a)는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무정명사인 수동문으로서 어떤 대상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대상의 사물이나 사항이 어떠한가 등의 일반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표현이다. 또한 이러한 문형은 앞의 5.1.1의 「有が有に～(ら)れる。」型처럼 대체적으로 사용빈도수가 많은 문형으로서 (47b)~(52b)와 같이 대응하는 능동문도 존재하고 있다.

(47a)~(52a)를 살펴보면,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에 의해 어떤 동작·작용의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지만, 피해의식과 같이 화자의 이해감정(利害感情)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서술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47a)~(49a)에서는 수동문의 동작주인 「風」 「波」 「薄暮」가 자연현상으로서 주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50a)~(52a)에서는 동작주인 「皮」 「ブルドー

ザー」「腹の痛み」가 각각 재료, 도구, 원인으로써 주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등의 사항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문형은 5.1.2의 「有が無に~(ら)れる。」型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어에 있어서 동작주가 무정명사일 경우 주로 피동작주에 시점을 두고 표현하는 수동문으로 나타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²⁴⁾ 따라서 이처럼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무정명사인 경우에도 5.1.2의 「有が無に~(ら)れる。」型和 함께 「に」수동문의 사용빈도수가 대체로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무정명사로 이루어진 「に」수동문의 술어에 쓰이는 동사를 살펴보면, 「とる」「さらう」「包む」「おおう」「ほりくずす」「支配する」등 주로 동작주가 피동작주에 대해 물리적으로 작용하여, 이에 따라 피동작주가 직접 어떤 영향을 받는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의 동사가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에 따라 살펴본 「に」수동문의 예문에 쓰인 동사를 정리해 보면 [표5]와 같다.

[표5]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에 따른 동사

주어	유정명사	유정명사	무정명사	무정명사
동작주	유정명사	무정명사	유정명사	무정명사
동사	褒める 尊敬する 呼ぶ だます ぶん殴る いぢめる	さらす 襲う 取り上げる 撃つ 巻き込む	奪う 占領する 買い集める 認める 歓迎する 親しむ	おおう ほりくずす 支配する さらう 包む とる

24) 国広哲弥(1970), 『意味諸相』, 三省堂, p.248. 참조

5.2 「によって」수동문

우선 「によって」수동문에 대한 고찰을 하기에 앞서 「によって」가 어구(語句)로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대략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실마리를 얻도록 하겠다.

일본어 수동문에서 「によって」는 격조사 「に」와 동사 「よる」의 연어(連語)를 모체로 해서 성립한 용법이다. 「によって」는 이미 동사 「よる」가 본래 가지고 있던 통어적인 제기능을 잃고 형태적으로도 고정화되어 「に」와 「よる」의 연어라고 하기보다는 「によって」전체로서 하나의 격조사로 간주되는 한 낱말에 해당되는 단위이다. 따라서 「よる」에서 나타나는 술어로서의 기능과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53) 奴隸達はアラブ人によって地中海まで連れて行かれた。 (砂川 1984 : 81)

(53)의 명사 「アラブ人」과 동사 「連れて行く」은 「動作主」와 「動作」이라는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によって」이다. (53)에서 「動作主 - 動作」이라는 관계는 (54)의 보문(補文)속에서 이미 성립되고 있다.

(54) [奴隸達が(アラブ人が奴隸達を地中海まで連れて行く)られた。]

「によって」는 이와 같이 보문 속에서 명사와 동사와의 격관계를 표층의 수동문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격조사 중에서는 「に」에 상당하는 기능을 다하고 있다.²⁵⁾

5.2에서는 「によって」수동문의 용례 중에서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 각 문형별 수동문의 의미·용법에 대해 어떠한 성립양상이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수동문의 술어에 나타나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특성과 그 경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5) 砂川有里子(1984), p.81.

5.2.1 「有が有によって~(ら)れる。」型

동작주가 「によって」 격을 취하는 수동문 중에서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인 경우이다.

(55) a. 彼は部下によって殺害された。 (李成圭 2003 : 34)

b. 部下が彼を殺害した。

(56) a. 警察によって殺人未遂の現行犯で逮捕されたその女の名前は、…。 (H, p.293)

b. 警察はその女を殺人未遂の現行犯で逮捕した。

(55a)(56a)는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인 경우의 예로서 직접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고 있다. (55a)는 술어에 문장체 계열의 동사 「殺害する」가 쓰이고 있으며 동작주 「部下」를 「によって」 격으로 명시해 동작주의 주관적·의도적인 행위를 명확히 내세워 강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56a)는 술어에 문장체 계열의 동사 「逮捕する」가 쓰이고 있으며 동작주 「警察」을 「によって」 격으로 명시해 동작주의 주관적·의도적인 행위를 명확히 내세워 강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인 경우에 「によって」 수동문으로 나타내는 용례는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인 경우에는 동작·작용의 과정에 의미의 중심을 두고 있는 수동문으로서, 이러한 수동문은 주로 「に」 수동문으로 표현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によって」 수동문이 부자연스러워서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55a)(56a)처럼 통상 「に」 격으로 나타나는 동작주도 술어에 쓰인 동사 「殺害する」 「逮捕する」가 문장체 계열의 동사이고, 그 문장이 동작·작용의 결과 지속되는 상태에 의미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によって」 수동문이 자연스럽다.²⁶⁾

寺村(1982)에 의하면, 「によって」 격을 취하는 수동문 중에서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인 경우 (57a)에서와 같이 「入れる」 「出す」 류의 동사에서 간혹

26) 細川由起子(1986), p.123.

그 용례가 보이긴 하지만 이들 동사류가 수동문으로 될 때에는 동작주의 조사 선택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서술하고 있다.²⁷⁾

- (57) a. 子どもが母親 $\left(\begin{array}{l} ? \text{に} \\ * \text{から} \\ \text{によって} \end{array} \right)$ 車に乗せられる。
 b. 母親が子どもを車に乗せる。

5.2.2 「有が無によって~(ら)れる。」型

동작주가 「によって」 격을 취하는 수동문 중에서 주어가 유정명사이고 동작주가 부정명사인 경우이다.

- (58) a. 一九六〇・六・五。樺美智子は国家権力によって虐殺された。
 (林美秀 1999 : 47)
 b. 国家権力が樺美智子を虐殺した。
 (59) a. あなたがたは信仰によって救われるのだ。 (日本語教育事典, p.457)
 b. 信仰があなたがたを救うのだ。
 (60) a. 一揆に参加した人々は、しっかりとした規律によって結ばれていました。
 (中社, p.183)
 b. しっかりとした規律が一揆に参加した人々を結んでいました。
 (61) a. 彼は教育によって、価値観が変えられた。 (林憲燦 2003 : 182)
 b. 教育が彼の価値観を変えた。

(58a)~(61a)는 수동문의 주어가 유정명사이고 동작주가 부정명사인 경우의 예로서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고 있다. (58a)~(61a)는 수동문의 동작주가 행한 동작·작용이 주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수동문의 동작주는 부정명사이기 때문에 주어에 대해 어떤 동작·작용을 미

27) 寺村秀夫(1982), p.236.

치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자로 해석되기보다는 그 수동문에서의 동작·작용의 원인과 수단(근거)·재료의 뒤안으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다.²⁸⁾ 즉 (58a)에서는 「国家権力」이 「樺美智子の虐殺」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으며, (59a)에서는 「信仰」이 「あなたがたの救い」의 재료·도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60a)(61a)에서는 「規律, 教育」이 각각 「人々の結び」 「価値観の変わり」의 수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원인과 수단·재료를 나타내는 부정명사는 주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작주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성립되기 위한 주변적인 요소로서 간접적으로 상황의 성립에 관여하는 간접적인 동작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명사인 동작주를 「によって」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によって」는 동작주가 주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명시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²⁹⁾

이와 같이 주어가 유정명사이고 동작주가 부정명사로 이루어진 「によって」수동문의 술어에 쓰이는 동사를 살펴보면, 「虐殺する」「救う」「結ぶ」「変える」등 동작주가 피동작주에 대해 물리적인 작용을 하는 동사이거나 또는 주어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많이 쓰이고 있다.

5.2.3 「無が有によって~(ら)れる。」型

동작주가 「によって」격을 취하는 수동문 중에서 주어가 부정명사이고 동작주가 유정명사인 경우이다.

- (62) a. 刀鍛冶職人によって鉄砲がつくられるようになった。 (中社, p.113)
 b. 刀鍛冶職人が鉄砲をつくる。
- (63) a. 中国の東北地方に満州人によって建てられた清は、…。 (中社, p.133)
 b. 満州人が清を建てた。
- (64) a. 俳句は、江戸時代のはじめ、松尾芭蕉によって完成された。 (小6 上, p.20)

28) 林憲燦(2003), p.93.

29) 砂川有里子(1984), p.83.

- b. 松尾芭蕉が俳句を完成した。
- (65) a. 海に生きる人々によって生産される塩や海草、魚介類は、…。 (中社, p.88)
 b. 海に生きる人々が塩や海草を生産する。
- (66) a. 水墨画が雪舟によって大成された。 (中社, p.96)
 b. 雪舟が水墨画を大成した。
- (67) a. 当時は、中国の国土が初めて秦の始皇帝によって統一されたころである。
 (中3, p.60)
 b. 秦の始皇帝が中国の国土を統一した。

(62a)~(67a)는 주어가 부정명사이고 동작주가 유정명사인 경우의 예로서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동은 동작주보다 피동작주에 화자의 시점이 놓여 있고 동작주는 보통「に」격을 취하여 동작주를 명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62a)~(67a)와 같이 주어가 부정명사인 문형의 수동문에서는 통상적으로 동작주를 표면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문이라 하더라도 문맥상의 이유로 동작주의 존재를 표면에 명시해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는 동작주를「によって」격으로 명시하여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문형의 수동문은 동작주를 일부러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그 동작주를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 (68) a. 授業が始められた。 (林憲燦 2003 : 238)
 b. 先生が授業をはじめた。
 c. 授業が先生によって始められた。

(68a)는 (62a)~(67a)와는 달리 능동문 (68b)의 동작주「先生」을 주어의 위치에서 끌어내리고 동작의 대상「授業」을 수동문의 주어로 표현한 것으로서 동작주가 생략되어 있는 수동문이다. 즉 동작주를 표면에 명시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상태의 수동문이며 주어에 해당하는「授業」은「始められる」라고 하는 동작의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동작주가 생략되어 있지만, 잠재된 동작주를 표면에 굳이 명

시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68c)와 같이 「によって」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문형의 수동문은 주어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동작주의 행위·작용에 의해 주어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며 또한 동작주가 주어에 대한 물리적인 행위·작용도 약하게 느낀다. 따라서 수동표현의 성격상 주관성이 개입된 동작주의 경험을 다룬 것이라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화자(話者)의 이해감정(利害感情)을 수반하지 않고 주로 주어의 상태나 성질에 대한 사실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에 쓰인다.

이와 같이 주어가 무정명사이고 동작주가 유정명사로 이루어진 「によって」수동문의 술어에 쓰이는 동사를 살펴보면, 「作る」「建てる」「完成する」「生産する」「大成する」「統一する」「築く」등 주로 동작주의 동작·작용의 결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 새롭게 출현한다는 의미적 특성을 지닌 동사 즉 창조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가 많이 쓰이고 있다.

한편, 寺村(1982)는 이와 같이 창조 행위에 관련되는 동사류가 수동문이 되었을 경우, 「に」수동문으로 나타내지 않고 「によって」수동문만을 허용하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69) このころ、源氏物語が紫式部（*に
によって）書かれた。

(70) 金閣は義満（*に
によって）建てられ、銀閣は義政（*に
によって）作られた。

(69)(70)에 쓰이고 있는 동사 「書く」「建てる」「作る」는 창조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류로서 이러한 동사들은 「到達点」을 요구하는 이동의 동사나 「變化の結果状態」를 요구하는 변화의 동사와 공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본래 「작업의 결과로서 출현한 것이 존재하는 장소」와 관련이 깊다고 말하고, 이런 이유에서 이들 동사가 수동형태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に」라고 되어 있으면 듣는 사람은 그것을 장소의 의미로 해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に」수동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³⁰⁾

또한 砂川(1984)는 「によって」수동문밖에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30) 寺村秀夫(1982), p.223.

같은 예문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71) この手記は山田記者（*に
によって）書かれたものである。

(72) その問題は参加者全員（*に
によって）熱心に討議された。

(71)(72)에서처럼 「書く」「討議する」 등과 같은 동사를 수동문으로 할 경우 주로 무정명사가 주어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이러한 수동문은 피동(被動)의 의미가 약하며 동작주에 대한 관심도 약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수동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작주가 불분명하거나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많이 나타나며 통상적으로는 문장에 동작주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굳이 동작주를 표면에 명시하려고 한다면 동작주와 동사의 관계표시력(關係表示力)이 강한「によって」수동문으로 밖에 나타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³¹⁾

그리고 砂川(1984)에 의하면, 이러한 수동문은 주로 기술문(記述文)에 사용되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논설문이나, 해설문 등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술을 취지로 하는 문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5.2.4 「無が無によって～(ら)れる。」型

동작주가 「によって」 격을 취하는 수동문 중에서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무정명사인 경우이다.

(73) a. 豊かな表層土壤が雨によって浸食され、流失してしまった。 (中2, p.195)

b. 雨が豊かな表層土壤を浸食する。

(74) a. 住民の願いによって、飛砂防止の緑化事業が着手された。 (中1, p.117)

b. 住民の願いが飛砂防止の緑化事業を着手した。

(75) a. 全国の政治は朝廷と幕府の二つの権力によって行なわれていた。 (中社, p.70)

31) 砂川有里子(1984), p.80.

- b. 朝廷と幕府の二つの権力が全国の政治を行なった。
- (76) a. 反政府運動は言論によって展開されていった。 (中社, p.203)
- b. 言論が反政府運動を展開した。
- (77) a. 蒸気力によって動く機械が苦心のうえ実用化され、…。 (中社, p.168)
- b. 蒸気力が動く機械を実用化する。

(73a)~(77a)는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무정명사로 이루어진 수동문으로서 직접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고 있다. (73a)~(77a)를 살펴보면, 수동문의 동작주가 행한 동작·작용이 주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수동문의 동작주가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동작주를 주어에 대해 어떤 동작·작용을 미치게 한 직접적인 행위자로 해석되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다.³²⁾ 즉 (73a)의 「雨」는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74a)의 「住民の願い」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75a)(76a)의 「権力, 言論」은 모두 수단을 나타내고 있으며, (77a)의 「蒸気力」는 재료·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동문에서는 동작주와 동사와의 관계가 직접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원인과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형의 수동문에서는 화자(話者)의 이해감정(利害感情)을 수반해 나타내지 않고 어떤 사항의 사실이나 대상물에 대한 속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자연현상으로서의 동작주가 주어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동작주의 작용이 원인·수단·재료로서 주어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형의 수동문은 「によって」 격을 취하는 수동문중에서 가장 사용빈도수가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서에서 사용빈도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과서에 설명문이나 객관적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지문(地文)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동표현이 많다고 보아진다.

이와 같이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무정명사로 이루어진 「によって」 수동문의 술어에 쓰이는 동사를 살펴보면, 「着手する」「浸食する」「行う」「実用化する」「展開する」등 주로 「존재를 만들어 내다」「존재를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32) 林憲燦(2003), p.99. 참조

가 쓰이고 있다.

이상으로 「によって」수동문의 문성립에 대해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によって」수동문은 주로 동사의 동작·작용에 의해 일어난 결과나 상태에 의미중심이 놓여있는 경우에 쓰이고 있다. 또한 「に」수동문에 비해 전체적으로 그 사용빈도수가 적어 용례가 그리 많지는 않았으며 특히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부정명사일 때, 사용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에 비해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긍정명사인 경우에는 거의 용례가 없어 전체적으로 수동문의 사용빈도수가 극히 적었다.

지금까지의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에 따라 살펴본 「によって」수동문의 예문에 쓰인 동사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에 따른 동사

주 어	유정명사	유정명사	무정명사	무정명사
동작주	유정명사	무정명사	유정명사	무정명사
동 사	殺害する 逮捕する 乗せる	虐殺する 救う 結ぶ 照らす	つくる 建てる 完成する 大成する 統一する 書く	浸食する 着手する 行う 展開する 実用化する

VI. 결 론

지금까지 일본어의 수동문에 있어서 「に」 수동문과 「によって」 수동문의 의미·용법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우선, 양자(兩者)의 수동문을 고찰하기 위해 실질적인 수동문의 용례 실태를 조사해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가 유정명사인지 부정명사인지의 그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수동문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양자(兩者)의 수동문에 쓰이고 있는 동사는 어떠한 어휘적 의미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분석과 고찰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이 논문의 결론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 1) 일본어 수동문의 용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문헌에서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명시되어 있는 수동표현 197문을 발췌하여, 실질적으로 수동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1) 자료의 종류에 따른 수동문의 용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 「に」 수동문은 모든 자료에서 대부분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어 수동표현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によって」 수동문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사용빈도수가 적었다.
 - (2)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에 따른 유형별 용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 「に」, 「によって」 수동문은 주어와 동작주가 유정명사·부정명사에 관계 없이 모두 쓰여지고 있으며, 특히 「に」 수동문은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이거나 부정명사일 때 사용빈도수가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によって」 수동문은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인 경우에는 거의 용례가 없었으며,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부정명사인 경우에 사용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 2)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의 특성에 따라 「に」 수동문과 「によって」 수동문이 어떤 의미·용법을 나타내는지, 또한 술어에는 어떠한 동사가 쓰이고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 (1)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유정명사인 경우는 주로 「に」 수동문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수동문의 주어는 동작주가 행한 동작·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작·작용의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술어에 쓰이고 있는 동사는 「褒める」「尊敬する」「だます」「ぶん殴る」「いじめる」 등 주로 동작주가 피동작주에 대해 물리적·심리적 작용을 하는 동사나 감정과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이고 있다.
- (2) 수동문의 주어가 유정명사이고 동작주가 부정명사인 경우는 동작주가 부정명사이기 때문에 주어에 대해 어떤 동작·작용을 미치게 하는 접적인 행위자라는 의미보다는, 주어에 대한 원인·재료·수단의 의미로서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に」 수동문은 주어의 심리상태나 정신상태의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동작·작용의 과정이나 변화의 과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によって」 수동문은 동작·작용의 과정보다도 상태의 결과를 중시하지만 그다지 사용빈도수가 많지 않다. 또한 두 수동문의 술어에 쓰이는 동사는 「襲う」「撃つ」「さらす」「巻き込む」「取り上げる」「救う」「結ぶ」「照らす」「虐殺する」 등 주로 동작주가 주어에 대해 물리적·심리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주어의 심리상태나 정신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많이 쓰이고 있다.
- (3) 수동문의 주어가 부정명사이고 동작주가 유정명사인 경우는 주어가 동작주의 동작·작용에 의해 주어가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 그 때문에 화자(話者)의 이해감정(利害感情)을 수반해 표현하지 않고, 주로 사실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묘사할 때 쓰이고 있다. 또한 술어에 쓰이고 있는 동사를 보면, 「に」 수동문에서는 「奪う」「占領する」「歓迎する」「親しむ」 등 주로 동작주가 피동작주에 대해 물리적 작용을 하는 동사이거나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이고 있다. 「によって」 수동문에서는 「つくる」「建てる」「書く」「完成する」 등 주로 동작주의 동작·작용의 결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 새롭게 출현한다는 의미를 가진 창조동사(創造動詞)가 쓰이고 있다.
- (4) 수동문의 주어와 동작주가 모두 부정명사인 경우는 어떤 사항의 사실이나

대상물에 대한 속성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때 동작주는 원인·재료·수단 등을 나타내고 있다. 「に」수동문에서는 동작·작용의 변화의 과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によって」수동문에서는 동작·작용의 결과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술어에 쓰이고 있는 동사를 보면, 「に」수동문에는 「おおう」「ほりくずす」「支配する」「包む」「とる」등 주로 동작주가 피동작주에 대해 물리적 작용을 하는 동사가 쓰이고 있으며, 「によって」수동문에서는 「着手する」「展開する」「実用化する」「浸食する」「行う」등 주로 「존재를 만들어내다」「존재를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많이 쓰이고 있다.



參 考 文 獻

외국문헌

<단행본>

- 井上和子(1976), 『変形文法と日本語(上)・(下)』, 大修館書店
国広哲弥(1970), 『意味諸相』, 三省堂
久野暲(1983), 『新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鈴木重幸(1978), 『日本語文法・形態論』, むぎ書房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 くろしお出版
益岡降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三上章(1977), 『現代語法序説』, くろしお出版
村木新次郎(1991), 『日本語動詞の諸相』, ひつじ書房
森田良行(1980), 『基礎日本語 1, 2』, 角川書店

<사전류>

- 日本語教育学会 編(1982),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金田一春彦 外(1988), 『日本語百科大事典』, 大修館書店

<논문>

- 久野暲(1986), 「受身文の意味—黒田説の再批判」 『日本語学』 (2月), 明治書院
黒田成幸(1985), 「受身についての久野説を改訂する」 『日本語学』 (10月), 明治書院
佐伯哲夫(1987), 「受動態動作主マーカー考 上・下」 『日本語学』 (2月), 明治書院
砂川有里子(1984), 「<に受身文>と<によって受身文>」 『日本語学』 (7月), 明治書院
細川由起子(1986), 「日本語の受身文における動作主のマーカーについて」 『国語学』 (144), 国語学会
益岡降志(1982), 「日本語受身文の意味分析」 『言語研究』 (82), 日本言語学会編
村木新次郎(1991), 「ヴォイスのカテゴリーと文構造レベル」 『日本語のヴォイスと他動性』, 仁田義雄 編, くろしお出版
森田良行(1971), 「受身・使役の言い方」 『講座 日本語教育』 (第9分冊),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林美秀(1999), 「有情の受身文と非情の受身文における格助詞の違い」 『岡山大学国文論稿』 (27), 岡山大学

한국문헌

<단행본>

李成圭·閔丙燦(2003), 『日本語 受動文 用例研究 I』, 불이문화
林憲燦(2003), 『日韓両言語における受動文と使役文-ヴォイスのカテゴリ-の観点から-』,
J&C

<논문>

金勝漢(1985), 「日本語の受動文に関する一考察-韓国語の受動文との対照を中心に-」,
『논문집(인문편)』(第20집), 제주대학교
韓世眞(1995), 「日本語의 受動表現 研究」,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金炫廷(1999), 「日本語受動文의 動作主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郭智恩(2002), 「日本語의 受動文에 대한 一考察」,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Abstract>

Investigation on 「に・によって」 passive sentence in Modern Japanese

Go Hyeong Gwon

Japanes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sis director Kim Seung Han

As the passive of Japanese is a confrontational concept of the active, it indicates receiving an action from the outside or the effect of an action · operation from the outside. When an active sentence is converted into a passive sentence, the passive agent that is the object to receive an act in the active sentence is moved to the place of the subject of the passive sentence, and the case of the agent that is the subject of the active sentence is also converted. At the time, noun (phrase) that generally presents the agent of the passive sentence is expressed using case particles such as 「に」 and 「によって」.

The paper aims at grasping and helping understand the meaning and tendency of passive sentences expressed by the learners of Japanese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meaning and use of 「に」 and 「によって」 passive sentences.

For the aim, chapter II simply looks at the previous research on 「に」 and 「によって」 sentences. Chapter III examines the classification of passive sentences. Chapter IV grasps the examples of passive sentences. Chapter V investigates what meaning and use 「に」 and 「によって」 passive sentences hav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agents of passive sentences (animated noun or inanimate noun), checking what verbs are used in the predicate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 when the subject and agent of a passive sentence are all animate nouns,

※ The paper is a thesis of master in education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February 2009.

it is usually presented with 「に」 passive sentence. At the time, as the subject and agent of the passive sentence are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the subject emphasizes the process of the action・operation of the agent, being directly influenced from them. In addition, the verb used in the predicate are a one that the agent mainly influences the passive agent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and that presents emotion and sense.

Second, when the subject of a passive sentence is an animate noun and the agent of the sentence is an inanimate noun, the agent is presented as the meaning of a reason・material・action・measure for the subject rather than as the meaning of a direct agent that gives a certain action・operation to the subject due to the agent's inanimate noun. In the case, 「に」 passive sentence emphasizes the process of an action・operation or the process of change by describing a change in the psychological or mental status of the subject. 「によって」 passive sentence weights the result of a status rather than the process of an action・operation. Moreover, the verb used in the predicate of the passive sentence is a one that presents a change in the psychological or mental status of the subject by the agent influencing the subject physically・psychologically.

Third, when the subject of a passive sentence is an inanimate noun and the agent of the sentence is an animate noun, you do not feel that the subject receives any effect from an action・operation of the agent. Due to this fact, its passive sentence is used not for an expression that accompanies the sentiment of a speaker but for the objective description of a fact. In addition, the verb used in the predicate of the 「に」 passive sentence is a one that the agent conducts a physical action to the subject and that presents emotions. In the predicate of the 「によって」 passive sentence, a creation verb, which means that a certain thing that does not exist until now newly appears as the result of an action・operation of the agent, is used.

Fourth, when the subject and agent of a passive sentence are all inanimate nouns, the sentence indicates that it objectively describes the nature of a fact or object. At the time, the agent presents a reason・material・measure. 「に」 passive sentence emphasizes the process of a change in action・operation, and 「によって」 passive sentence weights the result of an action・operation. For the predicate of 「に」 passive sentence, verbs that an agent physically influences a passive agent are used. For the predicate of 「によって」 passive sentence, verbs that mean 「making an being」 and 「abolishing an being」 are used.